

광주 최고령 유권자 118세 할머니 “투표는 해야제~”

박명순씨, 북구 문흥1동 제1투표소서 투표권 행사 지역 모든 선거 참여...6월 지방선거도 “투표 할 것”

“투표하러 안 가냐?”
광주지역 유권자 가운데 최고령자인 박명순(118·여)씨가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1903년생인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아들 최경창(71)씨와 큰며느리 박양심(67)씨의 부축을 받으면서 북구 문흥1동 제1투표소를 찾았다.
두터운 옷과 털모자를 쓴 채 휠체어를 타고 온 박씨는 투표소로 들어서기에 앞서 아들의 도움을 받아 제운을 쥘 뒤 손세정제로 손을 닦고 일회용 비닐장갑을 꼈다.

투표소로 들어선 박씨는 신원 확인을 마치고 휠체어를 끄는 아들과 함께 기표소로 들어갔다. 박씨가 직접 인주를 들고 대통령 후보를 찍었다고 최씨는 밝혔다.
박씨는 투표 직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좋다”고 답했다. 박씨는 재작년 치러진 제21대 총선,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 지역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투표할 계획을 묻자 “한다”고도 답했다.
박씨는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며느리의 부

축을 받으며 두발로 걸어 투표소로 들어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로한 나이 탓에 부득이하게 휠체어에 올라타게 됐다.
가족들은 박씨가 투표소로 나서는 일정을 직접 챙긴 가운데 건강은 큰 문제가 없다며 안도했다.
아들 최씨는 “이날 아침 어머니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가족들에게 ‘투표하러 안가냐’고 보채셨다”며 “(이번 투표와 관련하여) 직접 TV를 챙겨보시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투표날은 어머니께서 들뜨시는 기분 좋은 날이다”며 “지난해부터는 지역 노인학교에 다니시면서 노래를 배우시기도 하는 등 정정하시다. 오래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9일 오전 광주 지역 최고령 유권자인 박명순(118·여)씨가 북구 문흥1동 제1투표소에서 아들 최경창(71)씨의 부축을 받으면서 투표를 하고 있다.

박남진기자

첫 투표 청년들 “편 가르기 그만하고 통합의 정치를”

“유세과정 보며 정치 관심 가져” “청년층 주체가 되는 정책 기대”

“이 한 표로 청년 세대의 미래가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기표 용구를 처음 만져본 유권자들이 당선될 새 대통령에게 통합의 정치와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대학생 김태영(20)씨는 이날 광주 북구 문흥1동 제1투표소에서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한 직후 “한 표의 무게를 처음 느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번 유세 과정을 보면서 정치인 가운데 100% 깨끗한 사람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정당과 인물 등 관계를 모두 떠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현 정권의 공과를 나누기도 했다. 입대를 앞둔 그는 사병의 월급이 점차 오르고 있는 점을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높게 평가했지만, 정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혐오와 편 가르기가 만연한 시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민들이 똘똘 뭉치려는 커녕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갈라섰다”며 “다음 정권은 더욱 국민과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남(18)군도 첫 대통령 선거에 의미를 두면서 “당선인이 부디 젊은 세대들에게 힘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9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1동 제1투표소에서 올해 만 19세가 된 유권자가 생애 첫 투표를 하고 있다.

그는 “수능을 본 이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 모든 후보자들에게 문제가 있어 보여 고민이 많았다”며 “현재까지도 유세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 과정 가운데 불거진 후보자들의 배우자 문제와 돌연 단일화를 선언한 데 따른 재외 국민들의 투표권 상실 문제 등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당선인과 정치권이 협력해 잘 매듭 짓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이번 대선이) 20대로서 새 출발을 하는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간절할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응원하는 후보가 당선돼 향후 나라를 이끌 젊은 세대들에게 힘을 줄 수 있길 바란다. 청년층이 주체가 되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환기자

김희중 대주교 “대선 후 최우선 과제는 갈등 완화...꼭 투표”

제20대 대통령선거 소중한 한표 행사

천주교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가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고 “당선자는 선거과정의 갈등과 대립이 완화될 수 있는 정책을 가장 먼저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주교는 9일 오전 광주 서구 효광중학교에 설치된 ‘상무2동 제4투표소’를 찾아 20대 대선 한표를 행사했다.
김 대주교는 “이번에 선출될 20대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선거 과정에서 갈라졌던 여러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이 서로 통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통합과 국민소통이 가장 최우선의 과업”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랐던 개혁이 중단 없이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정착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고 민족의 미래를 선도하는 지도자가 선택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했다”며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정치 철학을 견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인 것 처럼 국민 각자의 생각을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국민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뜻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광주 서구 효광중학교(상무2동 제4투표소)에서 천주교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광주가톨릭평화방송 제공)

선거에 모든 국민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슬비기자

신안 작은 섬 주민들도 ‘소중한 한 표’

선관위, 민간 선박 등 임차해 투표 지원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전남 신안군의 작은 섬 유권자들도 선박과 차량 등을 이용해 투표소가 이동,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섬으로 형성된 신안군의 유권자는 3만5139명으로 투표소는 모두 50개소가 설치됐다. 이들 중 지도읍 선도와 압해읍 고이도, 증도면 병풍도, 임자면 재원도 등 15개 투표소는 본섬이 아닌 부속섬에 투표소가 마련됐다.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흑산면 영산도와 장도 등 작은 섬 유권자들은 선박을 이용해 큰 섬으로 이동해 투표에 참여했다.
흑산면 상·중태도 주민들은 인근 화태도로, 장도와 영산도 주민들은 본도인 진리 투표소로 이동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선관위는 작은 섬 주민들의 원활한 투표 참여를 위해 자체적으로 선박 등을 임대해 지원했다.
하지만 행정선 등이 지원되지 않은 일부 섬 주민들은 여객선이나 민간선박 등을 이용해 투표소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장도 주민들이 선박을 이용해 투표소가 설치된 본섬 진리로 나오고 있다. (사진=신안군 제공)

신안지역 투표함은 가거도와 태도·만재도는 민간선박, 흑산과 흥도·비금·도초도는 쾌속선을 임차해 수송하고, 하의·신의·장산도는 철부선을 이용할 계획이다.

신안=이덕주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